

##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八)

申南澈

그 顛倒와 同一한 부피만치 宏大한 世界觀, 人生觀의 價値 顛倒是 생겼  
다. 묵은 것, 그릇된 것의 破棄와 새로운 것, 참된 것의 健設은 不斷한 『레벤  
』의 活動이었다. 또한 그것의 當爲이었다. 哲學的 精神은 이 活動과 當爲에  
의 前進이고 憧憬이다. 更言하면 天動說이 地動說로 改變되자 일즉이 이러나  
지 못한 價値顛倒是 마련된 것이었다. 韓氏의 云謂한 『생존』을 보건대 그 概  
念이 不分明하여 存在一般을 指稱한 것 갖기도 하나 나는 그것을 생이 『레  
벤』으로 잡었고 그도 또한 그것을 指示한 것 갖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理解  
케 하는 現實 生活 一般의 地球 上的 意義와 地球의 太陽系에 잇서서의 地  
位는 流動의 見地에서 努力함에도 不抱하고 怪痒의 感이 不無하다. 大體로  
이 가티 큰 問題이고 提定키 極難한 問題를 此少한 紙面으로써 解決(?)하여  
보라고 아니 解釋하였다고하는 大怛한 態度가 벌써 그 出發에서부터 失敗하  
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그의 失敗는 『人生의 最後 陣營』이란 通俗 神學의 部俗한 善惡論에서  
그의 出發의 努力的이었슴에도 不抱하고 結定的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感性  
的』의 眞儀를 잘 解得하였다고 할 것 가트면 그리하여 그것이 思辨哲學의  
意味에서 凡俗한 것은 思想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發端되는 곳에 眞正한 思  
惟는 始作되고 一切의 秘密은 그것의 門戶를 開放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理解하였다면 좀 더 內容있게 惡의 存在와 善의 그것에 對한 對立을 表出하  
얏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結論에 잇서서 究境의 避難處로 『宇宙  
의 支配者 神을 차젓다』 瞬間的인 肉體的 束縛을 脫却하여 眞正히 自由로운  
人格을 獲得하는 것은 希望할 바이나 그러나 그것을 어떤 權威者를 設定함  
으로 말미암아 企圖한다는 것은 生長하는 大衆의 貴重한 本性和 眞實한 創  
造的 迫力을 □□케하는 『哲學上으로 본 生存』의 平凡한 論理的 俗流化이며  
사라져 支配階級的 意義 以外에는 少毫도 그 主義의 理由를 남기지 못할

것이다. 『眼鏡을 깨쳤스면 눈 상하지 안은 것을 『大幸』(筆者 傍點)으로 생각하며 돈 一圓을 失하였으면 『十圓』(同上)일치 안은 것을 多幸으로 알라하는』 『自暴自棄』하지 안는 썩으려진 最善視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 낼 것이냐? 나는 이 以上 더 그의 『努力』에 對하여 論及하지 안으려다. 그의 義圖한 바가 비록 意識的의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언정 그 結果에 잇서서 哲學의 俗流化이고 反動的 殘灰박게는 아무것도 招來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以上에는 나의 하고 시픈 말의 大綱을 表示하였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와에 對한 吟味를 좀 더 以上으로 하지 안코는 不足을 늦기겠슴으로 이 小稿의 本意는 다 맞치었다 할지라도 駮足기름에도 不抱하고 若干의 考案을 試하여보라 한다.

여기에 하나의 物體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 物體는 設使 어셔한 것이든지 우리의 눈 압에 그의 自然의 狀態에서 現前하였다고 보자. 그 物體는 우리의 主觀이 作用하든지 안하든지 그 物體 그대로의 狀態에서 存在 할 것이며 그 意味에 잇서서 그 物體는 客觀 自體이고 主觀의 承認 以前의 一言의 □□의 存在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客觀의 存在에 對하여 疑心하지안는다. 우리가 눈을 쓰고 事物現象을 볼 썩에는 그 事物現象이 『있다.』는 것의 明證性을 十全으로 承認하나 그러나 한번 눈을 감을 썩는 그 事象의 世界는 瞬間에 그 狀態를 눈을 쓰고 볼 썩의 狀態를 일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그 事象도 世界가 우리가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있지』안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妄發일 것이다. 그 事象의 世界는 우리가 눈을 감음에도 不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主觀을 썩나서도 客觀은 『잇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눈을 쓰고 본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의 問題가 생길 것이다. 우리의 常識일지라도 그것이 『常識』임에도 不抱하고 우리가 現在에 事物을 『보고 있다』는 것을 承認하리라. 그러치 안흐면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承認하지 안는 것의 根據도 喪失 할 것임으로이다. 그 가티 우리는 事物을 『본다』 望日의 滿月이 中天에 皎皎임을 보고 한 개의 돌알이 마당에 잇슴을 본다. 그 『본다』를 水晶體에 비취는 光線의 作用이라고 生理的으로 썩는 物理的으로 說明 할 수 잇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도 그것으로써 『본다』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에 對하여는 何等의 解答을 엇지 못하였다고 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望日의 滿月이 中天에 皎皎함을 보고 한 개의 돌알이 마당에 잇음을 보는 것의 『본다』는 主觀에 制約되는 客觀의 認識이다. 同時에 『본다』는 主觀은 容認에 制約된 主觀이다.

卽 皎皎한 滿月과 한 개의 돌알이 主觀에 對하여 時間 形式으로 썩는 空間

形式으로 制約的이었다는 意味에 있어서 客觀의 主觀이 그것으로써 그것 아  
님이 아님을 認識하였다는 點에서 主觀에 對한 制約이다. 그와 가티 모든 五  
宮 作用도 同一한 秩序 下에서 說明 할 수 잇을 것이다.